

C1005 글로벌리츠(VUL)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해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장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글로벌리츠(VUL)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위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위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한화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글로벌리츠(VUL)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56398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6.04.24
운용기간	2020.10.01 ~ 2020.12.31	존속기간	취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 당 집행투자기구는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 리츠자산에 순자산(NAV) 대비 70% 이내 투자하고 국내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 대비 20% 이내에 투자하여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자본소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원,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글로벌리츠(VUL)	자산 총액 (A)	7,661	6,646	-13.26
	부채 총액 (B)	5	5	14.72
	순자산총액 (C=A-B)	7,657	6,640	-13.27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4,759	4,041	-15.08
	기준가격 (E=C/D×1000)	1,608.94	1,643.18	2.13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행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4분기 글로벌리츠는 미 대선 완료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반등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에 경제 지표 개선 기대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11월 중대데이터센터와 물류센터 리츠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 같은 기간 호텔, 리테일, 헬스케어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부진했던 경기 민감 업종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4분기 등 펀드는 산업재 센터의 비중이 BM대비 높아 성과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12월 포트폴리오 일부 조정을 위해 그동안 코로나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경기 민감주 성격의 리테일, 호텔 센터 비중을 점차 높이는 리밸런싱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말 기준으로 글로벌리츠는 39.53%, 인프라 및 유틸리티 자산은 21.8%, 해외채권 ETF는 18.1% 수준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확진자수는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백신 접종의 점차 시작되고, 미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코로나19피해가 컸던 호텔/리조트 및 리테일, 헬스케어 등 경기 민감 섹터의 편입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이터센터 리츠의 경우 주가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비중은 조정할 계획입니다. 단, 산업재 섹터도 종목 선정에 따라 12월과 같이 펀드성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선별 투자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고배당 포트폴리오는 BM보다 O/W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장기 금리 상승,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가능성 등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더 좋은 성과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국내채권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지속되는 점, 특히 한국에서 가장 낙관적인 투자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현재와 같이 BM보다 U/W 포지션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글로벌리츠(VUL)	2.13	6.08	10.83	0.62
(비교지수 대비 성과)	(-6.82)	(-4.53)	(-2.99)	(-5.02)
비교지수(벤치마크)	8.95	10.61	13.82	5.64

※ 비교지수(벤치마크): S&P High Yield Dividend Aristocrats Index(T-1) X 10% + FTSE EPRA Nareit Developed Index(T-1) X 60% + 종합채권 만기중합 X 20%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글로벌리츠(VUL)	0.62	12.94	15.76	17.53
(비교지수 대비 성과)	(-5.02)	(-2.87)	(-0.82)	(-4.22)
비교지수(벤치마크)	5.64	15.81	16.58	21.75

※ 비교지수(벤치마크): S&P High Yield Dividend Aristocrats Index(T-1) X 10% + FTSE EPRA Nareit Developed Index(T-1) X 60% + 종합채권 만기중합 X 20%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전기	100	0	0	26	121	0	0	0	-1	83	330
당기	67	0	0	11	268	0	0	0	0	-196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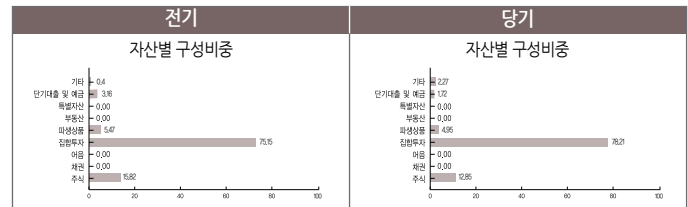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AUD (836.83)	0	0	0	103	0	0	0	0	42	0	145
CAD (852.60)	0	0	0	67	0	0	0	0	1	0	68
CHF (1231.56)	232	0	0	0	0	0	0	0	1	0	233
EUR (1335.06)	367	0	0	0	0	0	0	0	0	0	367
GBP (1480.95)	0	0	0	79	0	0	0	0	1	0	80
HKD (140.13)	0	0	0	28	0	0	0	0	1	0	29
JPY (105.3)	0	0	0	279	0	0	0	0	4	0	283
NZD (784.74)	0	0	0	71	0	0	0	0	29	0	100
SEK (132.31)	256	0	0	0	0	0	0	0	0	0	256
SGD (821.24)	0	0	0	390	0	0	0	0	3	0	393
USD (1086.30)	0	0	0	2,935	5	0	0	0	23	0	2,962
KRW (1.00)	0	0	0	1,245	324	0	0	0	9	151	1,729
합계	854	0	0	5,198	329	0	0	0	114	151	6,646

※ () : 구성비중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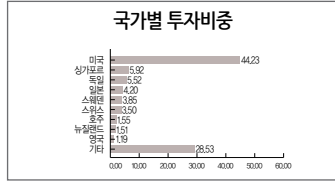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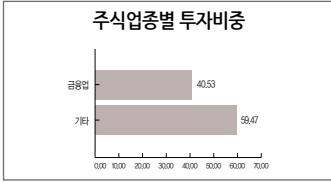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업종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금융업	40.53	6		
2	기타	59.47	7		
3			8		
4			9		
5			10		

▶ 국가별 투자비중

(단위 : %)

순위	국가명	비중	순위	국가명	비중
1	미국	44.23	6	스위스	3.50
2	싱가포르	5.92	7	호주	1.55
3	독일	5.52	8	뉴질랜드	1.51
4	일본	4.20	9	영국	1.19
5	스웨덴	3.85	10	기타	28.53



주) 위 업종구분은 한국거래소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이 하락할 경우 (원화강세):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하락분만큼 환 평가손실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비용 분만큼의 환헤지 이익이 발생합니다. -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약세):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상승분만큼 환 평가이익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비용 분만큼의 환헤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 환헤지를 통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하지만,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20.12.31) 현재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20.10.01 ~ 20.12.31)	환헤지로 인한 손익 (20.10.01 ~ 20.12.31)
90	76.2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하며 환헤지로 발생한 손익 사항 역시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하락과 상응하는 환헤지손익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환헤지 비용은 통화선물거래에 따른 수수료이며, 선도환거래의 경우 수수료가 계약 환율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합니다.

■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보유현황

▶ 통화선물

(단위: 계약, 백만원)

종목	매수/매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비고
엔 F 202101	매도	26	273	
유로 F 202101	매도	26	347	
미국달러 F 202101	매도	289	3,137	
AUDUSD Crncy Fut Mar21	매도	2	167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12.88	6	집합투자증권 INNOVATIVE INDUSTRIAL PROPER	2.31
2	집합투자증권 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9.97	7	해외주식 SWISS PRIME SITE	2.08
3	집합투자증권 맥쿼리인프라	8.76	8	해외주식 FASTIGHETS AB BALDERB SHRS	2.05
4	집합투자증권 VANGUARD DIVIDEND APPREC ETF	5.07	9	집합투자증권 ASCENDAS INDIA TRUST	2.04
5	단기상품 증가금(삼성선물)	4.97	10	해외주식 CATENA AB	1.8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주식

(단위: 주, 백만원, %)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SWISS PRIME SITE	1,294	138	2.1	스위스	CHF	기타	
FASTIGHETS AB BALDERB SHRS	2,400	136	2.1	스웨덴	SEK	Real Estate	
CATENA AB	2,345	119	1.8	스웨덴	SEK	기타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수익증권	831	856	미국	USD	12.88
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수익증권	668	663	대한민국	KRW	9.97
맥쿼리인프라	수익증권	633	582	대한민국	KRW	8.76
VANGUARD DIVIDEND APPREC ETF	수익증권	334	337	미국	USD	5.07
INNOVATIVE INDUSTRIAL PROPER	수익증권	87	153	미국	USD	2.31
ASCENDAS INDIA TRUST	수익증권	136	136	싱가포르	SGD	2.04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증거금	삼성선물		324	0.00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서장	41	78	2,646,562			2119000125
이대석	차장	38	78	2,646,562			2120001220
김태현	과장	37	78	2,646,562			2119000109
최명혁	사원	28	78	2,646,562			2119000110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현재	최명혁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7	0.08	6	0.08	
판매회사	6	0.07	5	0.07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13	0.16	11	0.16	
기타비용	13	0.15	3	0.04	
매매 증개 수수료	단순매매 · 증개수수료	8	0.09	6	0.08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8	0.09	6	0.08
증권거래세	0	0.01	0	0.01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증개수수료는 제외된 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 · 비용비율(A)	매매 · 증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1.059	0.2296	1.2886
당기	1.0246	0.2329	1.2575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증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증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증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

(단위: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 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705	63	6,789	419	49.11	194.83

※ 매매회전을이란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금액의 총액에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격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매매회전이 높을수록 매매거래수수료(0.1% 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비용이 증가합니다.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을 추이

(단위: %)

2020-04-01 ~ 2020-06-30	2020-07-01 ~ 2020-09-30	2020-10-01 ~ 2020-12-31
0.00	0.00	49.11

‘글로벌리스크(VUL)’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당사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헤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 조 제3호 및 제4호)